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 SCRIPTORY


창세기 24 주차 (창 19:17~20:13)  
(2016년 5월 29일 - 2016년 6월 4일)  
(제 4 권 24 호)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ORY 제 4 권-제 24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6 년 5 월 29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개정

헬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sup>th</sup>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1997)

####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http://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6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롯이 구원되다 (주입)

### 오늘의 본문 (창 19:17~23)

(17 절) 그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을 때, 한 명이 말했습니다.

(וַיְהִי כְּהוֹצִיָאם אֹתָם הַחוּצָה וַיֹּאמֶר)

네 생명을 위해 도망가라!(הֲמַלֵּט עֲלֶיךָ נַפְשְׁךָ)

뒤를 돌아 보지 말아라!(אַל-תִּבְטֵ אַחֲרָיִךְ)

들에서 멈추지 말아라!(וְאַל-תַּעֲמֹד בְּכָל-הַכְּפָר)

산으로 도망가라! 멸망 당하지 않으려면!(הֲהָרָה הֲמַלֵּט פֶּן-תִּסְכָּה)

(18 절) 롯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וַיֹּאמֶר לוֹט)

내 주여, 제발, 안됩니다.(אַלֵּהֶם אֶל-נָא אֲדֹנָי)

(19 절) 보세요. 당신의 종이 당신의 눈에서 은혜를 받았고, (הִנֵּה-נָא מְצָא עֲבָדְךָ חֵן בְּעֵינֶיךָ)

당신은 제 생명을 살리기 위해 행하시는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וַתִּגְדַּל חֲסִדְךָ אֲשֶׁר עָשִׂיתָ עִמָּדִי לְהַחְיֹת אֶת-נַפְשִׁי)

그러나 저는 저 산까지 도망 칠 수 없습니다.(וְאֲנֹכִי לֹא אוּכַל לְהִמָּלֵט הַהָרָה)

재앙이 저에게 달라 붙어 저는 죽게 될 것입니다.(פֶּן-תִּדְבַקְנִי הָרָעָה וּמָתִי)

(20 절) 보세요, 지금 저 도시가 도망치기에 가깝습니다.(הִנֵּה-נָא הָעִיר הַזֹּאת קְרֹבָה לָנוּס שָׁמָּה)

또한 저곳은 작습니다.(וְהִיא מְצֻעָה)

제발 내가 그곳으로 도망치게 허락해 주세요.(אִמְלֹטָה נָא שָׁמָּה)

저곳은 작지 않습니까?(הֲלֹא מְצֻעָה הִוא)

그러면 제 생명이 보존 될 것입니다.(וְתַחֲיֵ נַפְשִׁי)

(21 절) 그가 롯에게 말했습니다.(וַיֹּאמֶר אֲלָיו)

보라. 내가 또한 이 일에 대한 너의 요청을 들었다.(הִנֵּה נִשְׁאַתִּי כְּיָדְךָ גַּם לְדַבֵּר הִנֵּה)

네가 말한 그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겠다.(לְבַלְתִּי הֲכַפִּי אֶת-הָעִיר אֲשֶׁר דִּבַּרְתָּ)

(22 절) 서둘러서 그곳으로 도망쳐라.(מַהֵר הֲמַלֵּט שָׁמָּה)

네가 그곳으로 가기 전까지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כִּי לֹא אוּכַל לַעֲשׂוֹת דְּבָר עַד-בֹּאֶךָ שָׁמָּה)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은 소알이었다.(עַל-כֵּן קָרָא שֵׁם-הָעִיר צוֹעַר)

(23 절) 해가 땅 위로 돋았습니다.(וַתִּשְׁמַשׁ יָצָא עַל-הָאָרֶץ)

롯은 소알로 들어갔습니다.(וְלוֹט בָּא צֹעָרָה)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천사들은 롯과 그의 가족의 손을 붙잡고 도시 밖으로 끌고 나왔다. 그리고는 롯에게 황급히 도망할 것을 명했다. 뛰다가 멈추어서도 안 되고 뒤를 돌아보아서도 안 된다. 상황이 매우 급박함을 천사의 이야기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자칫하다가 화를 모면할 수 없다. 심판은 임박했다. 롯은 멀리 도망갈 자신이 없었다. 먼 산까지 가는 도중에 화가 미칠까봐 덜컥 겁이 났다. 롯은 천사에게 간청한다.

“내 주여, 제발 안됩니다. 보세요. 당신의 종이 당신의 눈에서 은혜를 받았고, 당신은 제 생명을 살리기 위해 행하시는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 산까지 도망칠 수 없습니다. 재앙이 저에게 달라붙어 저는 죽게 될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 저 도시가 도망치기에 가깝습니다. 또한 저곳은 작습니다. 제발 제가 그곳으로 도망치게 허락해 주세요. 저곳은 작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생명이 보존될 것입니다”(창 19:18~19).

롯은 다급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천사가 말한 산까지는 도저히 도망갈 자신이 없었다. 대신 롯은 어떤 작은 성을 지목했다. 롯이 생각하기에 그 정도 거리라면 충분히 도망칠 수 있다고 믿었다. 롯은 소알성을 가리키며 “저곳은 작다”라는 말을 연거푸 두 번이다 강조한다.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더라도 하찮은 저곳까지는 심판의 화가 미치지 않았으면 한다는 말의 우회적인 표현일 것이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큰 도시를 멸망시키면서 이렇게 작은 도시인 소알까지 멸망시키는 것은 너무나한 것 아니냐라는 뜻이기도 하리라.

천사는 롯의 요청을 받아들여 소알은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이렇게 해서 소알은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천사는 반드시 롯을 살려야 했다. 비록 혈혈단신으로 불 가운데 얻는 부끄러운 구원이긴 하지만 롯을 살려주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셨고 소알은 롯 덕분에 화를 면했다.

소알은 ‘사소한, 작은, 하찮은’이라는 뜻이다. 소돔은 ‘불타는 성’이라는 뜻인데 ‘속박, 묶어둠’이라는 의미도 있다. 말 그대로 롯은 소돔에 묶여 있었다. 소돔의 풍요와 문화에 묶여 있었고, 그들의 향락에 속박당해 살고 있었다. 하지만 소돔에 살면서 그들과 함께 숨쉬는 것조차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걸 롯은 몰랐다. 이미 롯은 자기 힘으로는 한 걸음도 거기에서 빠져 나올 수 없었다. 20여년 넘는 시간을 보내며 그는 소돔에 동화되었고, 이제는 자신의 정체성마저 잊어버릴 정도가 되었다.

세상은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블랙홀처럼 모든 것들을 빨아들인다. 택한 백성인 우리들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세상의 막강한 힘을 이겨낼 능력이 없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를 쓸 때에는 이미 늦어도 한참 늦은 상태다. 그렇다고 이 세상을 떠나 혼자서만 격리된 삶을 살 수도 없다.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살기는 하지만 이 땅의 힘에는 휩쓸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강한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성경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한다.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들어보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

여기서 마음은 헬라어로 ‘누우스’(νοῦς)다.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음’(heart)가 아니라 세계관, 가치관, 생각들을 의미한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 말이다. 오늘날 세상의 척도는 옳고 그름보다 좋고 나쁨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세상은 좋은 것을 위해서는 옳은 것을 기꺼이 포기하라고 속삭인다. 그래서 옳은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추구하게 되고 그것이 당연한 게 돼 버렸다. 부정하게라도 많은 부를 쌓는 것이 정의로운 가난보다 낫다고 말한다. 건강하지 못한 것을 악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기독교도 언제부터인지 소위 말하는 변영 신학에 물들어 갔다. 하나님만 잘 믿으면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장수하며, 자녀들도 출세한다고 설교한다. 실제로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사

업을 번창시켜 주셨다고 공공연하게 증언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 말하는 세계관이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세상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에 물들지 말라고 강하게 권면한다.

룻은 소돔과 고모라의 세계관에 폭 빠져서 그들과 이미 하나가 되어 있었다. 처음부터 룻은 소돔을 바라보며 그곳을 동경했었다. 그의 눈에 비친 소돔은 에덴 동산이나 에굽땅처럼 보였다. 그의 머리 속에는 이 세상에서의 풍요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 룻이 스스로의 힘으로 그곳을 빠져 나오기란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그런 룻을 그곳으로부터 빼내기 위해 심판이라는 초강력 수단을 동원하셨다. 결국 그는 겨우 몸만 빠져 나오게 된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그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아주 작은 성 소알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천사에게 강권한다. 세상으로부터의 완벽한 결별은 룻에게 불가능했던 것 같다.

룻은 급히 소알로 들어갔다. 그러자 날이 밝아왔다. 이제 그 땅에 심판이 임박했다. 소알로 들어가는 룻의 이야기를 읽으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자. 정말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풍요를 쫓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 혹시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런 세상의 풍요를 보장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각자 자신을 돌아보기 바란다.

## 목상을 위한 질문

당신을 유혹하는 세상의 가치관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 땅에서 잠시 받는 고난보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풍요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나요? 왜 그런 생각이 듭니까?

## 이브라함을 기억하사 (월요일)

### 오늘의 본문 (창 19:24~29)

- (24 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내리셨습니다.  
 (וַיְהִי הַמָּטֵיר עַל-קְדָם וְעַל-עַמֹּרָה גְּפְרִית וְאָשׁ)  
 여호와로부터, 하늘로부터, (מֵאֵת יְהוָה מִן-הַשָּׁמַיִם)
- (25 절) 그는 이 도시들, 그 모든 지역을 멸하셨습니다. (וַיִּהְיֶה אֶת-הָעָרִים הָאֵלֶּה וְאֵת כָּל-הַבְּקָר) 그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 그 땅에서 난 것들을, (וְאֵת כָּל-יִשְׁבֵי הָעָרִים וְצִמַח הָאֲדָמָה)
- (26 절) 롯의 뒤에 있던 그의 아내는 돌아봤습니다. (וַתִּבֹּט אִשְׁתּוֹ מֵאַחֶרָיו) 그래서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וַתְּהִי נְצִיב מְלַח)
- (27 절)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וַיִּשְׁכֶּם אַבְרָהָם בְּבֹקֶר) 여호와 앞에서 있던 장소에 가기 위해, (אֶל-הַמָּקוֹם אֲשֶׁר-עָמַד שָׁם אֶת-פְּנֵי יְהוָה)
- (28 절) 그는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모든 지역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וַיִּשְׁקֹף עַל-פְּנֵי קְדָם וְעַל-כָּל-פְּנֵי אֶרֶץ הַבְּקָר) 그는 땅의 연기가 불가마의 연기처럼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וַיֵּרָא וְהִנֵּה עֲלָה קִיטָר הָאָרֶץ כְּקִיטָר הַכְּבֹשֶׁן)
- (29 절) 하나님께서 그 지역 도시를 멸하실 때, (וַיְהִי בְשַׁחַת אֱלֹהִים אֶת-עָרֵי הַבְּקָ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וַיִּזְכֹּר אֱלֹהִים אֶת-אַבְרָהָם) 그래서 그가 그 멸망하는 중에 롯을 내보내셨습니다. (וַיִּשְׁלַח אֶת-לוֹט מֵתוֹךְ הַהֶכְלָה) 그가 롯이 거주하고 있던 도시들을 멸하실 때, (בְּהִפּוֹךְ אֶת-הָעָרִים אֲשֶׁר-יָשָׁב בָּהֶן לוֹט)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소돔 사람들은 어느 때처럼 그날도 평온한 아침을 맞이했을 것이다. 평소처럼 아침밥을 먹고, 사고팔 물건을 챙기고 집을 수리하고... 어젯밤 롯의 집에서 있었던 소동만 해도 아침이 밝자 어느새 지나간 일이 되었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못내 아쉬워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그저 하룻밤의 헤프닝 정도로만 생각했을 지도 모른다. 늘 그랬듯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을 맞이했을 것이다. 그런 평온한 아침에 별안간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를 강타했다. 갑자기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내려 온 도시는 불바다가 되었다. 성경은 유황과 불이 여호와로부터 나와서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지역을 멸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 도시에 살던 모든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고, 사람은 물론이고 그 땅에서 난 모든 것들이 몰살당했다. 오직 롯과 두 딸만 살아남은 것이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갑자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을까? 성경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오직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직전에 아브라함에게 설명한 내용이 전부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이 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어떤 부르짖음이었는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을 거라고 추측만 할 뿐이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두 번째 편지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벧후 2:6-7).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도 야고보는 “간음한 여인들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약 4:4). 엄밀히 말해 소돔과 고모라는 세상과 벗된 것이 아니라 세상 그 자체였다. 사람들은 우상을 음란히 섬겨 자기 집을 찾은 천사들과 성관계를 통해 스스로를 깨끗게 하는 종교 의식을 치르려고 했고, 그것을 말리던 롯을 해코지 하려고도 했다.

그런데 롯은 그런 심판의 와중에 아내를 잃었다. 그녀는 천사들에 이끌려 소돔성 밖으로 빠져나왔다. 천사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들의 등을 떠밀었다. 돌아보지도 말고 들에서 머물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신신당부를 했다. 그런데 롯의 뒤에서 달리던 롯의 아내는 그만 뒤를 돌아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소금 기둥으로 변했다. 앞서 달리던 롯은 아마 자신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도 까맣게 몰랐을 것이다. 분명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달렸을테니 말이다.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산에 도착했을 때 자신의 아내가 없는 것을 보고 롯은 얼마나 황망한 마음이 들었을까?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파온다.

분명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었다. 왜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을까? 아마도 그녀는 소돔 출신 여인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했을 당시에 롯에게 처가 있었다는 어떤 암시도 없기 때문이다. 롯의 처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 생각지도 못한 심판을 받아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이 너무도 가슴아팠을 것이다. 결국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고, 마침내 소금 기둥이 되었다. 훗날 예수님은 종말에 대해 제자들에게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눅 17:31-32).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다. 소돔은 처참하게 멸망했고, 롯과 두 딸은 그곳을 벗어났다. 롯의 아내는 불행하게도 자신의 고향 소돔을 향해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성경은 다시 헤브론 땅 아브라함에게로 카메라 앵글을 돌린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매달렸던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소돔이 보이는 곳으로 급히 달려갔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지역을 내려다 보았다. 그는 그 땅에서부터 연기가 불가마의 연기처럼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멸망당해 재만 남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보며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무도 그때 아브라함에게 롯이 가까스로 구원되었다는 소식을 전하지 않았으리라. 아마도 아브라함은 롯이 죽었을 거라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하든 롯은 엄연히 살아 있다. 멸망 중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출해 내셨다. 롯은 하나님 덕분에 살 수 있었고,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빚을 진 셈이다. 은혜는 공짜가 아니라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빚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기억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다.

## 묵상을 위한 질문

심판은 생각지도 못했던 때에 갑자기 임합니다. 당신도 그 심판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 롯이 산으로 들어가다 (화요일)

### 오늘의 본문 (창 19:30~38)

- (30 절) 롯이 소알로부터 나와서 그의 두 딸과 함께 산에 거주했습니다.  
 (וַיֵּצֵא לוֹט מִצּוֹעָר וַיָּשָׁב בְּהָר וּשְׁתֵּי בָנוֹתָיו עִמּוֹ)  
 왜냐하면 그는 소알에 거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כִּי יָרָא לְשָׁבֶת בְּצוֹעָר).  
 그는 그의 두 딸과 동굴에 거주하였습니다. (וַיָּשָׁב בְּמַעְרָה הוּא וּשְׁתֵּי בָנוֹתָיו).
- (31 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했습니다. (וַתֹּאמֶר הַבְּכִירָה אֶל־הַצְּעִירָה)  
 우리 아버지는 늙었다. (אָבִינוּ זָקֵן)  
 그리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이 땅에는 우리에게로 올 사람이 없다.  
 (וְאִישׁ אֵין בְּאֶרֶץ לְבוֹא עֲלֵינוּ כְּדָרָךְ כָּל־הָאָרֶץ)
- (32 절) 자, 우리 아버지에게 와인을 마시게 하자. (לְכֹה נִשְׁקֶה אֶת־אָבִינוּ יַיִן).  
 그리고 그와 동침하자. (וַנִּשְׁכְּבָה עִמּוֹ)  
 그러면 우리 아버지로부터 자손을 보존할 것이다. (וְנִחְיֶה מֵאָבִינוּ זָרַע).
- (33 절) 그날 밤, 그녀들은 그녀들의 아버지가 와인을 마시도록 했습니다.  
 (וַתִּשְׁקִינָן אֶת־אָבִיהֶן יַיִן בַּלַּיְלָה הַהוּא)  
 큰 딸이 들어가서 그녀의 아버지와 동침했습니다. (וַתְּבֹא הַבְּכִירָה וַתִּשְׁכַּב אֶת־אָבִיהָ).  
 그러나 그는 그녀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וְלֹא־יָדַע בְּשִׁכְבָּהּ וּבְקוּמָהּ).
- (34 절) 다음 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했습니다. (וַיְהִי מִמָּחָרֹת וַתֹּאמֶר הַבְּכִירָה אֶל־הַצְּעִירָה)  
 자, 어제는 내가 나의 아버지와 동침하였다. (הַיּוֹם־שִׁכַּבְתִּי אִמָּשׁ אֶת־אָבִי).  
 오늘 밤도 그가 와인을 마시게 하자. (וַנִּשְׁקֶנוּ יַיִן גַּם־הַלַּיְלָה)  
 그리고 네가 들어가 그와 동침하라. (וּבֹאִי שִׁכְבִּי עִמּוֹ)  
 그러면 우리 아버지로부터 자손을 보존할 것이다. (וְנִחְיֶה מֵאָבִינוּ זָרַע).
- (35 절) 그날 밤도 그녀들은 그녀들의 아버지가 와인을 마시도록 했습니다.  
 (וַתִּשְׁקִינָן גַּם בַּלַּיְלָה הַהוּא אֶת־אָבִיהֶן יַיִן)  
 작은 딸이 일어나서 그와 동침했습니다. (וַתִּקַּם הַצְּעִירָה וַתִּשְׁכַּב עִמּוֹ)  
 그러나 그는 그녀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וְלֹא־יָדַע בְּשִׁכְבָּהּ וּבְקוּמָהּ).
- (36 절) 롯의 두 딸은 그녀들의 아버지로부터 임신을 했습니다. (וַתַּהַרְיֵן שְׁתֵּי בָנוֹת־לוֹט מֵאָבִיהֶן).
- (37 절) 큰 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וַתֵּלֵד הַבְּכִירָה בֵּן)  
 그의 이름은 모압이라고 하였습니다. (וַתִּקְרָא שְׁמוֹ מוֹאָב)  
 그는 오늘날 모압 사람의 아버지(조상)입니다. (הוּא אָבִי־מוֹאָב עַד־הַיּוֹם).
- (38 절) 작은 딸도 역시 아들을 낳았습니다. (וַהַצְּעִירָה גַּם־הִיא יָלְדָה בֵּן)  
 그의 이름은 벤암미라고 하였습니다. (וַתִּקְרָא שְׁמוֹ בְּנֵי־עַמִּי)  
 그는 오늘날 벤암몬 사람의 아버지(조상)입니다. (הוּא אָבִי בְּנֵי־עַמּוֹן עַד־הַיּוֹם).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심판을 피해 소알로 들어갔던 롯은 이내 산으로 거처를 옮겨 동굴 생활에 들어간다. 심판을 모면한 두 딸들도 아버지 롯과 함께 했다. 롯이 10년간 살아왔던 삶의 터전은 완전 초토화되었다. 그는 소알로 들어 갔으나 그곳에 오래 있을 수가 없었다. 성경은 그가 소알에 거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했다. 롯이 소돔에서 빠져 나온 이후 롯의 행태를 보면 두 가지 의문이 생긴다.

첫째, 그는 왜 소알에 거하는 것을 두려워했을까? 소알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동류이다. 소알은 그 돌라오멜 연합군이 쳐들어 왔을 때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한 연합군 중의 하나였다. 롯은 아마도 자신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고 소알 사람들이 의심할 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가족만 유일하게 살아남았기 때문이다. 아마도 천사들이 와서 롯의 가족만 구출해 내고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을 모조리 죽였다는 얘기를 소알 사람들이 알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래저래 롯은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 그는 소알이라는 작은 성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별로 없었다. 유일한 대안은 삼촌 아브라함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대신 산으로 거처를 옮겨 은둔했고 그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여기서 드는 두 번째 의문은 왜 그는 삼촌 아브라함에게 가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다. 그는 삼촌을 따라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왔고, 할아버지 데라와 다른 가족들이 하란에 정착했을 때도 그들을 떠나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으로 왔다. 그가 소돔을 택해서 아브라함 곁을 떠날 때까지 그는 삼촌 아브라함을 친아버지처럼 따르며 살았다. 아브라함도 롯을 조카 이상으로 생각했다. 전쟁이 나서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전쟁에 참여해 롯을 구출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으로 롯은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었다. 게다가 아내까지 잃고 두 딸과 함께 겨우 목숨만 건졌을 뿐이다. 만약 그가 삼촌 아브라함에게 찾아갔다면 그는 쉽게 재기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는 대신 두 딸과 함께 산 속의 굴로 거처를 옮겼다. 왜 그랬을까? 혹시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던 자신 때문에 도저히 삼촌을 볼 면목이 없어서 그랬던 걸까? 만약 그가 삼촌을 찾았다면 딸들과의 불미스러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마침내는 돌이킬 수 없는 깊은 늪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누가복음 15 장에는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온다. 집을 나온 탕자는 천신만고 끝에 다시 아버지께 돌아간다. 그런데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는 건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 놓아야 한다. 흔히 말하는 염치까지도 전부 다 내려놓아야 가능한 일이다. 그야말로 철면피처럼 뻔뻔하기 이를 데가 없어야 돌아갈 수 있다. 롯은 도저히 아브라함에게 나설 면목이 없었을 것이다. 그가 부자가 된 것도 사실 모두 아브라함 덕분이다.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이집트에 갔을 때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로부터 많은 재물을 얻었다. 분명 아브라함은 그 중 일부를 롯에게 나누어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롯이 자기 재산이 많아지자 기다렸다는 듯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으로 갔다. 그리고는 몇십 년 동안 연락도 끊고 살다가 이제 와서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감히 삼촌을 찾아갈 면목이 서지 않았을 것이다.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재기해 볼 요량이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어찌 보면 롯은 진정한 은혜의 의미를 몰랐을 것이다. 은혜는 염치불구하고 하나님의 품에 덥쩍 안기는 것이다. 나의 모든 과오, 실수, 죄에도 불구하고 나의 처지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품에 달려가 안기는 것이다. 구원은 죄인인 우리 때

문에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좀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다.

“예수님, 저는 너무 많은 죄를 지은 죄인이라 죽임당하는 거 외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예수님, 제발 당신이 저 대신 죽어 주셔서 나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십시오! 제발요!”

이 얼마나 뻔뻔한 철면피이고 몰상식한 불한당인가?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버젓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아는가? 유감스럽게도 당신과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딤후 1:15).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다. 어떤 이는 가정이 깨지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으며, 죄를 지어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죄책 단 레이저 시술로도 결코 지울 수 없는 실패의 흔적을 지니고 살면서 늘 그것을 가리기에 급급한 삶을 살 수도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바로 그렇게 실패한 사람들을 위해서다. 그들은 그 실패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뚝처럼 삼촌 아브라함의 품을 포기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산속의 굴로 들어가는 것은 복음에 역행하는 행동이다. 구원은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짓고 실패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때론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피할 곳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기를 바란다.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다. 삶이 당신을 속이는 것 같은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주님께 돌아가자. 그분 안에 진정한 쉼이 있고 회복이 있다.

## 목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살면서 다른 이들에게 말 못할 수치스럽고 힘든 때가 있었나요? 그것 때문에 아직도 힘들어 하고 있진 않나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그분 안에서 그 모든 고통을 내려놓고 참 평안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 롯의 몰락 (수요일)

오늘의 본문 (창 19:30~38)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성경에는 뉴스 사회면에 실리는 기사들보다도 더 부끄럽고 낯뜨거운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한다. 며느리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은 사람이 있다. 성경은 이 사람의 죄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부하의 아내를 데려다가 동침하고 임신까지 하게 되자 그 부하를 전쟁터에서 죽도록 교사한 왕도 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죄가 하나님께 용서 받았다면서 스스로를 용서받은 자라고 말하기까지 한다. 이쯤 되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여 다른 남자에게 팔아넘긴 아브라함의 죄는 애교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패륜적 행위를 책망조차 하지않았다. 그런데 이런 모든 사건을 다 합친 것 같은 지저분한 사건이 롯의 가정에서 일어났다.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은 사건이다. 게다가 이 일이 술김에 일어난 우연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사건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들의 후손이 바로 모압과 암몬 족속이다.

롯은 소알을 빠져나와 산 속으로 들어갔다. 모든 재산을 다 잃었을 뿐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아내까지 잃게 되었다. 그뿐 아니다. 딸들은 정혼한 예비 신랑들을 잃고 졸지에 처녀 과부가 되었다. 이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다. 대를 이어 아이를 낳게 해줄 남자도 없고, 아버지를 이을 자손조차 보장이 되지 않는 상태다.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 큰딸이 동생에게 황당한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큰 딸의 얘기를 들어보자.

“우리 아버지는 늙었다. 그리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이 땅에는 우리에게로 올 사람이 없다. 자, 우리 아버지에게 와인을 마시게 하자. 그리고 그와 동침하자. 그러면 우리 아버지로부터 자손을 보존할 거이다”(창 19:31~32).

롯의 큰 딸의 목적은 단 하나다. 자신의 아버지 롯을 통해 자손을 보존하는 일이다. 당시 자손을 보존하지 못하는 것은 저주에 가까운 일이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무리를 해서라도 아들을 가지려 애를 썼다. 여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갖는 것이 후손이 없이 죽는 것보다는 낫다고 여겼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시아버지를 통해 후손을 얻었다. 물론 유다의 입장에선 부지불식간에 벌어진 일이지만 며느리에게서 손자라 해야할지 아들이라 해야할지 모를 쌍둥이를 얻게 되고 결국에는 그들을 자신의 정식 후손으로 인정하게 되었으니 말이다. 그러니까 당시 사회문화적 풍습으로 볼때 후손을 얻는 일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된 일이었다. 그래서 그 당시 후손을 얻는 것과 도덕적 비난, 둘 중 택일하라면 후손을 얻는 것이 더 명예로운 일로 생각했다.

큰 딸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몇 가지 연상되는 사건이 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나이 99 세에 나타나셔서 아들을 약속하자 장막 뒤에서 이 말을 엿들은 사라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라고 말하는 장면이다. 롯도 나이가 들어 점점 늙어가고 있고, 시간이 흐르면 더 이상 롯이 아이를 갖지 못할 정도로 늙게 될 것이다. 게다가 롯은 빈털터리인데다가 아들 하나 없는 상황에서 아내마저 잃은

상태다. 새로운 후처라도 들어서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롯에게 시집을 올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당시에는 후처를 들이더라도 지참금이 있어야 했다. 그리고 롯은 이미 주변 지역에서 요주의 인물로 찍혀서 그에게 시집을 여자를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롯의 딸들 입장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소돔 사람들과 이미 정혼한 상태였는데 남편들이 죽고 그 땅 모든 남자들까지 모두 다 죽게 되었으니 대를 이을만한 사람을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상태다. 롯의 큰 딸은 이렇게 앞뒤로 꽉 막힌 상황을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이 땅에는 우리에게로 올 사람이 없다”라고 애둘러 표현했다. 여기서 ‘도리’로 번역된 히브리어 ‘테레크’(תֵּרֵק)는 풍습으로 번역된다. 그래서 두 딸들은 자신의 위해,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 친아버지와 의 근친상간이라는 불명예를 택하기로 한 것이다.

두 번째, 술과 관련된 에피소드는 노아가 술을 마시고 장막에서 벌거벗고 자는 상황을 연상하게 한다. 노아가 술에 취해 자는 도중에 장막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나중에 술에서 깨어난 노아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대노했다. 롯도 딸들이 주는 술을 먹고난 그 밤에 자기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몰랐다. 하지만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노아와는 달리 롯은 끝까지 그 사실을 몰랐던 것 같다. 아마도 롯은 두 딸이 낳은 아들이 꿈에도 자기 아들이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을 공산이 크다. 두 딸들이 끝내 그 사실을 함구했을 테고 롯은 그 아이들이 자기 몰래 딸들이 사위와 동침해서 낳은 사위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을 지도 모를 일이다. 과정이야 어찌 됐든 결국 롯의 두 딸들은 아버지의 아들을 낳음으로써 이스라엘 주변 민족 중 그 혈통이 너무도 치욕스런 두 족속을 낳게 되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스라엘 역사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끼친 한 모압 여인이 등장한다. 바로 나오미의 며느리인 롯이다. 그녀는 다윗왕의 증조 할머니였고 그로 인해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당당히 그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이스라엘에게는 불가촉 족속이었던 모압 족속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게 된 것이다. 수치스런 일로 인해 이 땅에 생겨난 모압과 암몬 족속, 그들은 역사 내내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되어 하나님의 총회에 영구히 들어올 수 없다는 형벌까지 받게 된다. 그런데 그런 모압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어 롯을 통해 다윗이라는 걸출한 왕을 증손자로 보내시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인간의 머리로 어찌 감히 측량할 수 있겠는가? 이는 어떤 율법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보다 위에 있음을 입증해 주는 이야기다.

롯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난다. 그는 삼촌 이브라함을 따라 가나안으로 왔고, 부자가 되었고, 풍요를 쫓아 소돔으로 갔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고 아주 작은 도시 소알로 갔다. 하지만 그 소알에서도 오래 거하지 못했다. 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결국 아무도 없는 산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차마 입에 담기 민망한 과정을 통해 아들까지 얻게 된다. 풍요를 쫓았으나 그의 최후는 빈털터리였고, 결국에는 불미스런 혈통을 이 땅에 남기게까지 되었다. 자기 피를 쫓고 세상의 풍요를 쫓은 결과치고는 너무 비참하다. 롯의 인생을 보면서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무엇을 추구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는가?

##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당신의 허물과 수치를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습니까? 그분 안에서 당신의 삶이 재해석되는 경험을 했나요? 당신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 반복되는 아브라함의 실수 (목요일)

### 오늘의 본문 (창 20:1~2)

- (1 절) 아브라함이 그곳에서부터 네게브 땅까지 옮겨 갔습니다. (וַיִּסַע מִשָּׁם אֲבְרָהָם אֶרֶץ הַנֶּגֶב.)  
 그는 가데스와 술 사이에 거주했습니다. (וַיֵּשֶׁב בְּיִזְרְקָדָשׁ וּבֵין שָׁוֵר.)  
 그는 그랄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וַיֵּגֵר בְּגֵרָר.)
- (2 절)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를 “그녀는 내 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וַיֹּאמֶר אֲבְרָהָם אֶל-שָׂרָה אֵשְׁתּוֹ אַחֲתִי הִי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왔습니다. (וַיִּשְׁלַח אֲבִימֶלֶךְ מֶלֶךְ גְּרָר וַיִּקַּח אֶת-שָׂרָה.)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롯의 이야기가 끝나고 성경은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초점이 옮겨진다. 이 일이 있은 후 아브라함은 갑자기 거처를 헤브론에서 네게브로 옮긴다. 사실 네게브는 아브라함에게 별로 안 좋은 추억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나안으로 들어 왔을 때 그는 아내 네게브로 갔고, 거기서 기근을 만나 이집트로 갔다.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겪었는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여 이집트 왕 바로에게 팔았다가 망신을 당했다. 아브라함에게 네게브는 그런 곳이다.

그 일이 있은지 어언 2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을 떠나 네게브 땅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잠시 머물렀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또 다시 아내 사라를 누이라 부르게 되고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가는 일이 일어났다. 아브라함은 왜 이런 일을 되풀이했을까? 24년 전 이집트에 갔을 때만 해도 사라의 나이가 약 65세였으니 당시로서는 젊은 나이로 할 수 있다. 참고로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고, 사라는 127세까지 살았다. 오늘날 평균 수명을 고려해 볼 때 그 당시 65세는 지금의 30대에 불과했다. 아브라함이 충분히 이집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가질만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다르다. 그로부터 2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사라는 갱년기가 한참 지난 나이이다. 누가 보아도 중년을 넘어 노년으로 가는 늙은 여인이다. 게다가 얼마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까지 하신 상태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사라를 끝까지 보호했어야 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무엇이 두려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말했을까? 나중에 하나님께 혼쫓이 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따져 물었을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한다.

“이 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 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바리 하라 이것이 그대가 네게 베푸는 혜라 하였었노라” (창 20:11~13).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 참으로 천역덕스럽기까지 하다는 생각이 든다. 믿음의 조상에게 쓸 말은 아니지만 정말 생각이라곤 없이 사는 사람 같다. 아브라함은 말끝마다 하나님을 들먹인다. 그러나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하나님은 온데 간데 없고 오직 자기 자신만 남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말뿐이다.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렇다면 자기와 아내를 끝까지 보호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했다. 게다가 1년 뒤에 사라의 몸을 통해 태어날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주시며 그 아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상태다. 이런 상태라면 당연히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자 했던 이전의 구차한 행동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역설적으로 말해 아브라함은 이번에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24년을 살았어도 아브라함은 별로 변한 게 없다. 만약 그가 한층 업그레이드된 굉장한 믿음의 사람으로 용기있게 사라가 자신의 아내임을 선포했다면, 그리고 이 아내가 비록 늙었지만 곧 자신의 아이를 낳을 것이라 공언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역시 믿음의 조상답다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받았을 것이다. 또 그 후에 성경을 읽는 우리들도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과 용기를 본받고자 애를 썼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니,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지 못한 거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다행스러운지 모른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빛과 소금은 스스로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애를 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자신의 의지나 노력과는 상관없이 그 자체로 빛이고 소금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존재 자체로 빛이 나고 그 자체로 짜다. 어떻게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가?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당연히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어야 했다. 갈릴리 어부들에게서 무슨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있는가? 나다니엘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라며 나사렛이라는 지역 자체를 폄하하지 않았는가? 그 외에도 예수님께 나왔던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라. 그들에게서 무슨 빛과 소금으로서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 온 여인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는가? 세리 삭개오는 어떤가? 이렇듯 아브라함의 언약한 모습을 보며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의 약한 모습을 발견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넘어진 돌에 또다시 걸려 넘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염치 불구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그 뒤로 숨는다. 우리에게 죄를 이겨낼 능력이 있다고 감히 자랑하지 못하고, 때론 삶에서 실패하고 비겁하게 살지라도 염치없지만 우리의 도피성인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사실에 안도하고 감사하지 않는가? 구원은 죄를 짓지 않으려 두려워하며 애쓰는 것이 아니라, 어찌다 실패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은 염치없음이고 이렇게 염치없고 뻔뻔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이다. 아브라함처럼 말이다.

## 목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됩니까? 그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 자신을 정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다시 힘을 얻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위로와 평강을 얻고 있나요?

## 하나님의 개입 (금요일)

### 오늘의 본문 (창 20:3~7)

- (3 절) 그날 밤 꿈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오셨습니다. (וַיָּבֹא אֱלֹהִים אֶל־אַבְיִמֶלֶךְ בְּחֵלוֹם הַלַּיְלָ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וַיֹּאמֶר לוֹ.)  
 보라, 너는 죽은 사람이다. (הֲיָנָה מֵת.)  
 네가 데려간 그 여자로 인하여, (עַל־הָאִשָּׁה אֲשֶׁר־לָקַחְתָּ),  
 그녀는 남자와 결혼한 사람이다. (וְהוּא בָּעֵלְתָּ בְּעֵל.)
- (4 절) 아비멜렉은 그녀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וַאֲבִימֶלֶךְ לֹא קָרַב אֵלֶיהָ.)  
 그는 말했습니다. (וַיֹּאמֶר.)  
 내 주여, 의로운 백성도 죽이실 것입니까? (אֲדַנִּי הֲגוֹי גַּם־צַדִּיק תַּהַרֵּג.)
- (5 절) 아브라함이 내게 “그녀는 내 누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הֲלֹא הוּא אֶמְר־לִי אַחְתִּי הִוא?)  
 그녀도 또한 “그는 내 오라비다” 라고 했습니다. (וְהִיא־גַם־הוּא אֶמְרָה אַחִי הִוא.)  
 나는 정직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בְּתָם־לִבִּי וּבְנִקְיוֹ כַּפֵּי עֲשִׂיתִי זֹאת)
- (6 절) 하나님께서 꿈에서 그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וַיֹּאמֶר אֵלָיו הָאֱלֹהִים בְּחֵלֶם גַּם.)  
 나는 네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한 것을 알고 있다. (אֲנֹכִי יָדַעְתִּי כִּי בְתָם־לִבְךָ עָשִׂיתָ זֹאת.)  
 또한 나는 네가 나에게 죄짓는 것으로부터 너를 지켰다. (וְאַחֲשָׂה גַם־אֲנֹכִי אוֹתָהּ מִחַטּוֹ־לִי.)  
 그래서 나는 네가 그녀를 만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עַל־כֵּן לֹא־נִתְּמִירָה לְנַגֵּעַ אֵלֶיהָ.)
- (7 절) 이제 바로 그 남자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וְעַתָּה הָשִׁב אִשְׁת־הָאִישׁ.)  
 왜냐하면 그는 선지자다. (כִּי־נָבִיא הוּא.)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고 네가 살 것이다. (וְיִתְפַּלֵּל בְּעֵדֶךָ וְחַיָּה.)  
 그러나 만약 네가 그녀를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וְאִם־אֵינְךָ מְשִׁיב,)  
 너와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죽을 것을 알라. (דַּע כִּי־מֹת תָּמוּת אִתָּה וְכָל־אֲשֶׁר־לְךָ.)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지금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들어 온 이 시점은 구속사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기까지는 채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태를 열어 임신을 할 수 있게 하셨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아브라함의 말에 따르면 늘 그리 해왔듯이, 누이라고 속여 외간남자에게 보내버렸다.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남편이다. 이런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이라곤 조금도 발견할 수 없다. 그저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 아등바등대는 늙은 남자의 애처로운 모습만 보일 뿐이다.

아브라함이 또다시 사고를 쳤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했다. 약속의 자녀를 잉태하기 위해 온전하고 흠이 없어야 할 사라에게 치명적인 위기가 닥친 것이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

내 사라를 데리고 간 그날 밤, 하나님은 그의 꿈에 나타나셨다. 그리고는 다자고짜 아비멜렉에게 “너는 죽은 몸이다”라고 말씀하신다. 여자를 데리고 온 당일 밤에 흉몽을 꾸는 것이다. 요즘 말로하면 아브라함과 그에게 속한 가족들은 정말 ‘재수없는’(?) 사람들이다. 가는 곳마다 재앙과 분란이 일어나니 말이다. 그들이 이집트에 갔을 때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이 있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으로 들어가자 그들라오멜왕이 쳐들어와 쭉대밭을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급기야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을 받아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만다. 이번에는 그랄 왕 아비멜렉 차례다. 아비멜렉과 하나님의 대화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기에 앞서 3 절~7 절까지의 문학적 구조를 살펴보기로 하자.

- A: 너는 죽은 사람이다(3 절)
- B: 네가 데려간 그 여자(3 절)
- C: 아비멜렉이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4 절)
- D: 의로운 백성도 죽일 것인가(4 절)
- E: 정직한 마음(5 절)
- F: 하나님이 꿈에서 그에게 말씀하셨다(6 절)
- E: 정직한 마음(6 절)
- D: 내가 너를 죄로부터 지켰다(6 절)
- C: 내가 그녀를 만지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않았다(6 절)
- B: 그 남자의 아내를 돌려 주어라(7 절)
- A: 너와 네게 속한 사람이 모두 죽을 것이다(7 절)

위 구조를 보면 하나님이 철저히 사라를 보호하고 계심을 알 수 있다. 아비멜렉이 스스로의 의지로 사라에게 손을 대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아비멜렉이 정직하고 무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죄로부터 지키셨다. 하나님은 왜 아비멜렉을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셨을까? 그 이유는 아비멜렉의 죄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다시 아비멜렉의 이야기로 돌아가보자. 아비멜렉은 참으로 억울하게 됐다. 아비멜렉은 이 일에 대해 자신은 정직하게 행했고 추호도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항변한다.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은 그를 칭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사실 그는 억울한 피해자일 뿐인데다 용케 인내해서 아직까지 사라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상이라도 내려야 하는 것 아닌가? 아브라함이 실수했음에도 아비멜렉이 인내심을 발휘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하마터면 망쳐질 뻔했던 하나님의 계획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니 말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이 아비멜렉이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신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아비멜렉은 죄를 저질렀을 거라는 말이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악에서 벗어날 수 있다거나 죄를 안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비멜렉처럼 말이다. 어찌다 선을 행하거나 남들에게 칭찬 받는 일을 하면 길으로는 다 하나님 덕분이라 말하지만 내심 그 칭찬을 즐긴다. 그게 바로 인간이다. 하지만 단언컨대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스스로 의롭다 여기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떠나 행하는 모든 것이 죄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마 6:13).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고, 악에서 구원하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실 수 있다. 아비멜렉이 죄를 짓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가 의로운 자거나 의지가 강한 자여서 그랬는가? 아니다.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행동을 막으신 이유는 그를 죄의 유혹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이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악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우리들은 늘 자기의 의지와 생각대로 살아간다. 우리의 계획은 대부분이 자기중심적이다. 자신이 처할 위험은 최대한 회피하고, 자신의 이익은 극대화하려 한다. 말로는 이타를 외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인간은 스스로 절대적이고 완전한 이타성에 머무를 수 없다. 물론 간혹 성자라고 불리는 어떤 이들이 있긴 하지만 실상은 그들 역시나 아브라함이나 아비멜렉처럼 연약한 인간들일 뿐이다. 당신은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처럼 자기 피로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만약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다면 우리 중 누구라도 단 한 순간도 이 세상을 의롭게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성경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연약한 면을 여과없이 보여주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 그의 연약함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을 쉽사리 비난하지 못하는 이유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기 때문이 아닐까?

## 묵상을 위한 질문

이 세상이 그나마 살만하고 사회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인간들의 의로움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일까요?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 또 망심십이 벨친 아브라함 (토요일)

### 오늘의 본문 (창 20:8~13)

(8 절) 아비멜렉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의 모든 종들을 불렀습니다.

(וַיִּשְׁכַּם אַבְיִמֶלֶךְ בַּבֹּקֶר וַיִּקְרָא לְכָל־עֲבָדָיו)

그는 이 모든 일들을 그들 귀에 말했습니다. (וַיִּזְכֹּר אֶת־כָּל־הַדְּבָרִים הָאֵלֶּה בְּאָזְנוֹהֶם)

그사람들은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וַיִּירָאוּ הָאֲנָשִׁים מֹאד)

(9 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말했습니다. (וַיִּקְרָא אַבְיִמֶלֶךְ לְאַבְרָהָם וַיֹּאמֶר לוֹ)

네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한 것이냐? (מָה־עָשִׂיתָ לָנוּ?)

내가 네가 나와 내 나라에 가져 온 엄청난 죄를 너에게 지었으면 어쩔 뻔 하였느냐?

(וַמָּה־חָטַאתִי לָךְ כִּי־הִבֵּאתָ עָלַי וְעַל־מִמְלַכְתִּי חֲטָאָה גְּדוֹלָה)

너는 나에게 해서는 안되는 일을 하였다. (מַעֲשִׂים אֲשֶׁר לֹא־יַעֲשׂוּ עִשְׂיֹת עִמָּדִי)

(10 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וַיֹּאמֶר אַבְיִמֶלֶךְ אֶל־אַבְרָהָם)

무엇을 보았기에 네가 이런 일을 하였느냐? (מָה רָאִיתָ כִּי עָשִׂיתָ אֶת־הַדְּבָר הַזֶּה?)

(11 절)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וַיֹּאמֶר אַבְרָהָם)

나는 생각했다. (כִּי אָמַרְתִּי)

이 곳에는 분명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רַק אֵין־יִרְאַת אֱלֹהִים בְּמָקוֹם הַזֶּה)

이들이 나의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 것이다. (וַהֲרַגוּנִי עַל־דְּבַר אִשְׁתִּי)

(12 절) 게다가 그녀는 나의 누이, 내 아버지의 딸이다. (וְגַם־אֶמְנָה אָחֹתִי בַת־אָבִי הִוא)

그러나 내 어머니의 딸은 아니다. (אָךְ לֹא בַת־אִמִּי)

그녀가 내 아내가 된 것이다. (וַתְּהִי־לִי לְאִשָּׁה)

(13 절)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 돌아 다니게 하실 때 (וַיְהִי כִּאֲשֶׁר הִתְעַו אֹתִי אֱלֹהִים מִבֵּית אָבִי)

내가 그녀에게 말했다. (וַיֹּאמֶר לָהּ)

이것이 네가 나에게 베풀어야 할 은혜다. (זֶה חֲסִדְךָ אֲשֶׁר תַּעֲשֵׂי עִמָּדִי)

우리가 가는 모든 장소에서, 나를 “그는 내 오라비다”라고 말하라.

(אֵל כָּל־הַמָּקוֹם אֲשֶׁר נָבֹא שָׁמָּה אֶמְרִי־לִי אָחִי הוּא)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아비멜렉은 밤새 하나님의 질책을 받았다. 아마도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한숨도 못 잤을지도 모를 일이다. 아침이 밝자마자 모든 종들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밤새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전했다.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들은 종들은 몹시 두려워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셨다. 안전하게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게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이 선지자이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할 것이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생사 여탈권을 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창 20:7).

이 이야기는 순식간에 그랄 공동체 전체에 알려졌다. 헤브론에서 옮겨와 안전하게 머물기를 바랬던,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 속여 아비멜렉에게 넘겼던 아브라함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직면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아브라함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비록 아브라함은 또 다시 실수했지만, 그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민으로 안전하게 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 채 1년도 되지 않아 이삭이 태어난다. 그것도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그랄 땅에서 말이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가나안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켜 주셨다. 아브라함은 비겁하게도 또 다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했지만 하나님은 거꾸로 그 사건을 이용해서 아브라함을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도록 하셨다. 아브라함에게는 전화위복이 된 셈이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련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없는 행동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계획하신 모든 일을 이루어가신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닌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구속의 언약이다. 구속의 언약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는다는 언약이고, 우리를 자녀삼아 주신다는 약속이며,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인정한다는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성취된다. 믿는 자들도 살아가면서 실수하거나 넘어질 수 있다. 고난에 처할 수도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서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고통받을 수도 있다. 이혼 등의 문제로 가정이 깨어질 수도 있고, 일탈한 자식 문제로 잠못 이루는 밤이 계속될 수도 있다. 불륜을 저질러 남몰래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모든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조건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적이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처하든지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내 당당히 설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의로운 행동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눈처럼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밤새 곤욕을 치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말했다.

“네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한 것이냐? 네가 나와 내 나라에 가져 온 엄청난 죄를 내가 지었으면 어쩔 뻔 하였느냐? 너는 나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였다. 무엇을 보았기에 네가 이런 일을 하였느냐?”(9 절).

이 무슨 망신인가? 아브라함은 택한 백성이고 아비멜렉은 이방인이다. 솔직히 차라리 이 순간만큼은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었으면 하는 생각조차 든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죄를 불러왔고, 그 때문에 아비멜렉이 죄를 지을 뻔했다.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자신의 땅에 터잡고 잘 살고 있는 아비멜렉과 그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이 몹쓸 짓을 저지를 뻔했다. 평화로운 마을에 한 무리의 뜨내기꾼이 들어와 평지풍파를 일으킬 뻔했으니 말이다. 사실 아브라함이 가거나, 그와 관련된 곳마다 늘 문제가 일어났다.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네게브로 가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이번엔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갔는데 거기서는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이 들이닥쳤다. 누가 뭐래도 아브라함이 원인 제공자다. 아브라함이 사랑한 조카 롯이 들어갔던 소돔과 고모라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이번에도 여지없이 문제를 일으켰다. 이 정도되면 아브라함은 문제투성이 인간이다. 왜 그럴까? 아브라함이 인생을 잘못 살아서 그런 것일까? 아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히 잘못된 삶을 살지도 않았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 그랬다. 오늘날 우리의 윤리적 잣대로 함부로 그들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아브라함은 여느 사람들과 다름없이 그 당시의 삶의 방식대로 살았을 뿐이다. 문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고 그에게 언약을 한 이상 하나님은 그의 삶에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해 가야 하니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사사건건 관여할 수밖에 없었다. 그를 통해 인류 구원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삶이 다른 이들과 달리 왜곡되어 비치는 이유는 그가 특별히 비겁하게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이 그를 이끄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리어 엉뚱한 결과를 초래한 경험은 없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 방식대로 살아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더 잘 되고 뚝뚝거리며 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왜 종종 일이 꼬이고 그로 인해 괴로움을 겪게 되는가? 그런데 명심하기 바란다.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삶에 입증되는 순간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신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지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가? 힘들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분의 뜻에 자신을 맡겨보는 것이 어떨까?

## 묵상을 위한 질문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개입하고 있다는 걸 당신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당신이 세상 방식대로 사는 걸 내버려 두지 않으실까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당신은 그 일을 통해 무엇을 배웠습니까?